울산시, 내년 예산 5.1兆 편성… 복지·미래 먹거리 등 강화

〈지난해比 7.6%↑〉

국비 증가, 지방세입 여건 개선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 적극 반영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집중
복지·민생 분야에 1.7兆 투입

울산시는 총 5조1578억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는 총 5조1578억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2025년 본예산은 2024년도 4조 7933억원 대비 3645억원(7.6%)이 증가한 금액으로,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 등 국비 증가와 지방세입 여건 개선이 반영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64억원, 특별회계 681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체감형 정책인 울부심 사업을 비롯한 생활 밀착형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또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와 주력산업의 경쟁력 향상, 이차전지와 수소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에도 중점을 둬 편성했다. 아울러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예산안은 ▲복지·민생 ▲환경·녹지 ▲도시개발 및 사회 기반 시설(SOC) ▲경제·미래·신산업 ▲재난·재해·안전 ▲문화·체육·관광 등 6개 분야로 편성됐다.

분야별 세부사업을 보면 '복지·민생 분야'에 1조7022억원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94억원, 임산부·영아·고령자 교통약자 이동 추가 지원 26억원 등이다.

'환경·녹지분야'에는 2875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도시 울산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한다. 주요 사업은 2028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131억원, 산림녹지관리센터 건립 43억원등이다.

'도시개발 및 사회 기반 시설(SOC) 분야'에는 5243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200억원,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100억원, 디지털로 만든 열린 울산 미디어파사드 설치 83억원 등이다.

'경제·미래·신산업 분야'에는 3644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772억원, 수소도시 조성 및 수소버스 보급 168억원,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99억원 등이다.

'재난·재해·안전분야'에는 8086억원을 편성해 안전한 울산을 만들어 갈 계획이며, '문화·체육·관광분야'에는 2391억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콘텐츠 확충과 기반 시설(인프라)을 조성한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제252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확정될 예정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전남도,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18개 시·군, 65개소 '전국 최다' 선정

농번기 돌봄지원 대상 아동연령 확대
여건개선에 총 21.1억 예산 투입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2025년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에 18개 시·군, 65개소로 전국 최다 선정됐다.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농촌 아이돌봄 ▲보육시설이 부족한 읍·면을 이동식 차량으로 방문해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찾아가는 돌봄교실 ▲농번기 4~8개월동안 주말 아이돌봄방 운영을 지원하는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의 대상 아동연령을 기존 2세~초등 2학년에서 2세~초등 4학년으로, 운영기간을 기존 4~8개월에서 4~10개월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에서는 농촌 아이돌봄 28곳, 찾아가는 돌봄교실 3곳, 농번기 돌봄지원 34곳이 선정돼 총 21억1800만원의 예산을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영농철 여성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전남도 농가도우미(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 농촌지역에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촌 보육환경을 촘촘하게 살펴 보육사각지대가 없는 가족친화적 농촌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부산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박차

캠코-BNK금융그룹과 '맞손'

부산시는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BNK금융그룹 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공 협업 부산지역기업 지속성장 및 고용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지역 내 경영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특화 지원을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캠코와 BNK금융그룹은 경영애로 상태의 부산기업을 위해 매년 최대 600억원 규모의 지역특화 투자 및 고용 활성화 사업 지원을, 부산시는 '자산매입 후 재임대 사업'(S&LB) 임대료 지원 대상 확대 및 두 기관과 협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지원받은 기업이 부산시 고용정책사업(고용우수기업, 부산 50+ 인턴십, 청년고용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참여하는 경우 캠코로부터 연간 최대 4000만원의 임대료(이자) 감면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BNK금융그룹은 시 고용관련 정책사업에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 어업인 "日 암컷대게 유통 막아달라"

대게어업인연합회, 생존권 보장 요구

5개월간 금어기 마치고 11월부터 대게잡이가 본격 시작되었지만 영덕 및 울진 대게 대게잡이 어민들 깊은 시름에 빠져 들고 있다.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는 지난 7일 영덕군 강구수협에서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장(김해성), 강구수협장(김성식), 경북도청 어업관리팀장(최재성), 울진해경, 대게어업인연합회원들이 강구수협 대회의실에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북 대게잡이 어업인들은 충분한 협의나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수입 허가한 일본산 암컷대게(일명 빵게) 국내 유통으로 대게 어업인들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에는 (사) 경상북도 대게 어업인 연합회(회장 김해성) 는 정부(식약처)의 수산업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가 심각하다고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영덕대게 금어기 해제 후 3일 첫 위판 광경 /영덕군

아울러 김해성 회장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6조(포획.채취금지) 등을 유명무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부산세관을 통해 약 20톤의 일본산 스노우 크랩(빵게)이 인천, 포항, 대구 등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일본산 스노우 크랩(빵게) 유통 증명서를 악용해 국내 불법 조업한 암컷대게(빵게)와 혼합되어 시중에 유통될 경우 단속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수입한 것 이라 하고, 관할 부처인 해수부는 방관하고 있어 대게 어업인들은 힘들어 하고 있다.

/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률 전국 1위

〈5년 연속〉

올해 최종 취업률 69.5%

경북교육청이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에서 5년 연속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

11일 교육부의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경북 직업계고의 최종 취업률은 69.5%(전국 평균 55.3%)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공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함께 발표된 경북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은 29.6%(전국 평균 48.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 경북의 직업계고가 '취업과 기능인 양성'이라는 직업교육 방향에 맞게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관련 분야에서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농특산물 450 품목 30% 할인

경남도는 e경남몰에서 시군 인기 농특산물 450여 품목을 시중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남 우수 농특산물' 기획전을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최한다.

경남 우수 농특산물 기획전은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여 도민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경남 농특산물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기획전은 e경남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경남 농특산물 450여 품목과 김장철을 앞두고 높아진 김장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김장채소 전용관도 개설 운영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김해시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해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된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 행안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책임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다. 매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재난안전관리 6개 분야, 38개 지표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영암군

신혼부부 등에 이사비용 지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등의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해 '2024년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지원사업은 영암군으로 전입한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용과 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1인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중 올해 영암군에 전입한 세대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다자녀 가정은 신청일 기준 25세 미만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영암(전남)=양수녕 기자

대구시

외국인 투자가에 대구 투자 홍보

대구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4(Invest Korea Summit 2024)에서 외국인 투자가와 외신을 대상으로 대구 투자를 적극 홍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로, 대구시는 ▲'대구의 투자 매력' 발표 ▲외국인 투자기업 사절단 초청 산업시찰 ▲투자 홍보 및 상담 부스 운영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외국인 투자가와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시찰을 진행했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